

반딧불축제, 평일에도 ‘쭈욱~’

무주 “주말 열기 있다” 9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난타·퐁바 등 공연 준비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가 개막 4일 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잔잔한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제위원회 관계자는 “평일에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참여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관객이 되기도 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구성했다”라며 “무주재능자랑과 효문화 한마당, 산골군민노래자랑, 전통놀이 등으로 이어지는 평일 프로그램들이 뜨거운 주말의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재능자랑(9.3.~4.)은 3일 무주종합복지관, 문화원 회원들의 풍물, 가락장구, 건강체조, 서예퍼포먼스, 발리·라틴댄스 공연이 펼쳐졌으며 4일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생활문화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무대 올라 춤과 노래, 악기연주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효문화 한마당은 9월 4일과 5일, 7일, 9일 개최될 예정으로 각 일자별로 난타, 퐁바를 비롯한 연예인(전원주, 임주리 등)초청공연, 반디예술단, 백두한라예술단, 한누리태권도시범단 공연 등이 펼쳐진다.

산골군민노래자랑은 9월 5일 진행될 예정으로 6개 읍면 대표가 무대에 올라 실력을 뽐내며 읍면 단합을 주도할 예정이다. 초대가수 오로라와 하태웅, 오현도 무대에 오른다.

살다리 밭기(남대천)는 개막을 앞두고 폭우로 유실돼 안타까움을 더했었지만 현재 남대천 현장에서 살다리를 놓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통 복장을 입은 주민들이 재료 손질부터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9월 8일과 9일에는 살다리에 무주농악보존회 회원들이 신명나는 놀이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1일과 2일 선보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의 명성을 재확인시킨 나하놀이(줄을 타고 떨어지는 불꽃놀이)는 5일, 7일~9일까지 또 진행될 예정으로 안성면 주민(김평리

두문마을 나하놀이 보존회)들이 지난 12회 축제 때부터 재연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부남면 주민들이 전승해오고 있는 디딤방아 액막이놀이는 5일 진행되며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던 거리기원제로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춤과 제와 농악놀이를 선보이는 모습이 흥겹다.

무주면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놀이 기(旗)잡놀이와 무주읍 주민들이 펼친 솟대세우기는 지난 1일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반딧불축제 관계자는 “각 읍면을 대표하며 주민들이 재연하는 전통놀이들은 이제 무주반딧불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전통놀이를 통해 반딧불축제는 화합 축제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는 9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신비탐사와 반디 나라관, 반디 별쇼룸, 1박 2일 생태탐험 등의 주제 프로그램과 어린이 나라 등 상설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모으며 방문객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내 유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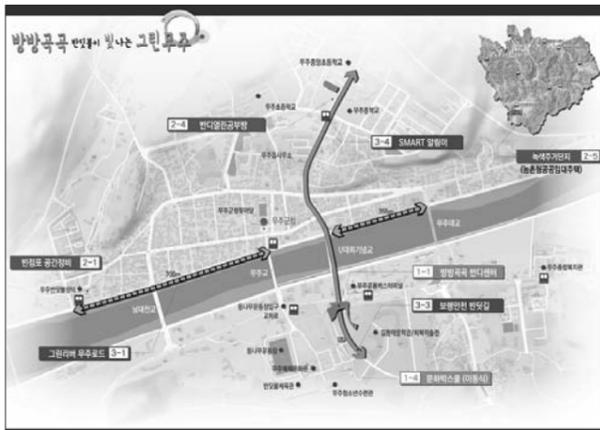
5년간 240억원 규모 추진 각종 생활서비스 거점 조성

무주군(무주읍)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번 선정된 전국 11개 시·군 중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확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의 각종 생활서비스 거점과 경제 활력 창출을 위한 거점을 만들어 배후마을로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5년 간 240억 원(국비 16,800, 지방비 7,200)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무주군은 “방방곡곡 반딧불이 빛나는 그린(Green) 무주”를 비전으로 2023년까지 방방곡곡 반디센터, ‘면면촌촌 문화탈리버리’, ‘귀농귀촌 반디사관학교’, ‘정기용 Space Tour’ 등을 추진해 ‘방방곡곡 누구드, 반딧불처럼 빛나는, 청정하고 운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핵심 상권인 무주 반딧불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셜 푸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반딧불 특세시장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사진은 사업계획도면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선정(국비 20억원)으로 추진하게 된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시장 주차장에 복합주차타워 건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황인홍 군수는 “2019 농촌중심지 활

성화사업 공모 선정은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얻은 값진 결실”이라며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방방곡곡 반딧불이 빛나는 그린 무주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생활과학교실이 과학문화 확산과 균등한 과학교육 기회 제공,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래인재 양성 ‘생활과학교실’ 인기

진안, 초·중·고 학생 대상 체험프로그램 제공

진안군 생활과학교실이 과학문화 확산과 균등한 과학교육 기회 제공,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진안군에 따르면 생활과학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진안군과 협력해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학 체험 프로그램이다.

군은 올해 모든 초·중·고 참여를 목표로 상반기 주천초등학교 등 6

지역 매아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장수군(군수 장영수)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 1.~9. 7.)을 맞아 3일 장계시장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이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이란 건강한 혈관관리를 위해 스스로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들에게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알고 관리하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 생활습관 개선 및 실천을 유도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적정 치료 및 관리의 중요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개별 상담도 실시했다.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구강, 정신보건, 치매안심센터, 자살예방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지역사회 중심재활 △결핵관리, 에이즈, 신드미 매개 감염병 관리 △사토포피부염, 여성 어린이, 국가감염진 사업도 홍보했다.

장수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계획서 의결,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제·개정안 심사 및 의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3일 임시회 개최와 함께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다음날 2차 본회의까지 이틀에 걸쳐 이어진다.

또한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규)에서는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2건의 동의안과 1건의 공의제안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준열)에서는 ‘진안군 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신갑수 의장은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군정의 주요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어전체육공원 꽃동산 놀러오세요”

장수군 계북면 주민자치회 4개월여간 조성 위해 총력

장수군 계북면사무소(면장 양영수)와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어전체육공원 꽃동산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황무지였던 어전체육공원(계북면 소비재로 769-12)의 잡초 및 자갈을 제거했으며 땅을 정리한 후 혼합골재(40㎡)를 한천에 채워 정월대보름 달집터틀 조성했다. 이후 수차례 로터리 작업을 통해 꽃동산 조성의 기반을 다졌다.

수레국화, 과꽃, 백일홍, 코스모스 등 6만본을 직접 포트에 파종해 면지원, 마을주민,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합심해 식재했으며 남은 꽃묘 2만본은 계북면 15개 마을에 분배, 식재해 아름다운 시가지조성에도 힘썼다.

폭염과 가뭄이 유난히 기승을 부린 올해 여름, 계북면은 꽃동산을 유지하

기 위해 스프링클러와 양수기를 동원해 매일매일 살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어전사거리-매계마을간(3.2km) 어전체육공원 꽃길 산책로를 조성해 우리면의 풍경을 느끼며 걸을 수 있도록 했다.

양영수 계북면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그리운 고향을 찾는 귀성객 여러분들께서 어전체육공원과 산책로를 한번씩 찾으시어 아름답고 정겨운 고향의 정취를 한껏 느끼고 가시길 바라며, 가족과 함께 풍성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규범 주민자치위원장은 “소공원 꽃동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꽃내음을 느끼고 마음의 양식을 얻어갈 기반이 더해 아름다운 고향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전체육공원은 꽃동산과 더불어 달집터, 야외운동기구 마련으로 앞으로 계북면 소재지의 행사 및 화합의 장소가 될 전망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태홍 스포츠 아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태홍

서바이벌

레프팅/카약 스키/보드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지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태홍 스포츠 아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질기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	